志鬼說話小考

——「術波伽」說話와의 比較硏究——

黃 浿 江*

Ⅰ. 志鬼說話의 文獻資料
Ⅱ. 術波伽說話의 資料와 志鬼說話
Ⅲ. 志鬼說話의 再構
Ⅳ. 類似性과 授受關係
Ⅴ. 共同의 基盤과 個別性

Ⅰ. 志鬼說話의 文獻資料

이미 佚書가 되어버린 『殊異傳』의 逸文 數篇이 『大東韻府群玉』에 收錄되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 志鬼의 悲戀을 그린 「心火繞塔」이 同書 終卷 「塔」條에 雙行四間의 簡潔한 記文으로 收載되어 있다. 즉

> 志鬼新羅活里驛人 慕善德王之美麗 憂愁涕泣 形容憔悴 王幸寺行香 聞而召之 志鬼歸寺塔下 復駕幸 忽然睡酣 王脫臂環置胸還宮 後乃睡覺 志鬼悶絶 良久心火出繞其塔 即變爲火鬼 王命術士作呪詞曰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見 時俗帖此詞於門壁以鎭火災(殊異傳)[1]

위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驛人 志鬼가 女王 善德을 짝사랑하였는데, 所願을 풀, 모처럼의 好機를 不慮의 「잠(睡眠)」으로 逸失하고 絶望 끝에 火鬼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鎭火의 呪俗이 新羅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說話가 비록 寺刹境內를 說話의 背景으로 삼고 있으나, 內容上 佛敎說話로 看做할 만한 要素는 달리 찾아 보기 어렵다. 寺刹이 背景이 된 관계로 자연 佛敎的인 Vehicle이 몇가지 발견된다. 王의 「幸寺行香」이나, 志鬼의 心火에 燒盡된 「寺塔」 등은 정녕 佛敎色 짙은 資料材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이것이 本說話의 佛敎說話 性格을 決定해 주는 要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說話主題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呪俗에서의 火鬼의 由來를 說明하는 民俗由來譚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 國文學
(1)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卷 20, 入聲 合 心火繞塔

앞에 引用한 志鬼說話 本文은 收載한 文獻(大東韻府群玉)의 「百科事典(事彙)」的 性格 때문에 그것의 당초 母本(殊異傳)에서 잔가지를 치고 굵은 줄기만 남겨 놓은 縮約의 記文일 可能性이 있다. 정작 殊異傳 所載의 志鬼說話 原典은 그것을 引記한 韻玉 記文보다 좀더 昭詳하게 敍述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殊異傳』이 佚傳한 지 오래고, 또 이에 대한 疑問點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2] 現在로서 위와 같이 斷定할 수만은 없다. 다만 『大東韻府群玉』 所載의 다른 記錄 가운데는 冗長한 原文을 要約 收錄한 경우도 인정되므로[3] 「心火繞塔」도 혹 이에 該當되는 것이 아닌지 揷疑해 본 것뿐이다. (要約 아닌 原文 그대로일 可能性을 전적으로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Ⅱ. 術波伽說話의 資料와 志鬼說話

上述한 志鬼說話의 問題와 관련하여 『大智度論』 所載 「術波伽」 說話가 여러가지 面에서 깊은 示唆를 던져준다. 이제 그 原文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如說國王有女 名曰 拘牟頭 有捕魚師 名術波伽 隨道而行 遙見王女在高樓上 窓中見面想像染著 心不暫捨彌歷日月不能飮食 母問其故 以情答母 我見王女心不能忘 母喩兒言 汝是小人 王女尊貴不可得也 兒言我心願樂不能暫忘 若不如意不能活也 母爲子故入王宮中 常送肥魚鳥肉以遺王女 而不取價 王女怪而問之 欲求何願 母白王女 願却左右 當以情告 我唯有一子 敬慕王女 情結成病 命不云遠 願垂愍念賜其生命 王女言 汝去至月十五日 於某甲天祠中住天像後 母還語子 汝願巳得 告之如上 沐浴新衣在天像後住 王女至時白其父王 我有不吉 須至天祠以吉福 王言 大善 即嚴車五百乘出至天祠 即到勅諸從者齊門而止 獨入天祠 天神思惟 此不應爾 王爲施主 不可令此小人毁辱王女 即厭此人令睡不覺 王女旣人見其睡重 推之不寤 即以瓔珞直十萬兩金遺之而去 後此人得覺見有瓔珞 又問衆人知王女來 情願不遂憂恨懊惱 婬火內發自燒而死 以是證知 女人之心 不擇貴賤 唯欲是從[4]

『智度論』에 收錄되어 있는 위의 說話는 捕魚師 術波伽의 자기 분에 넘친, 悲劇的인 사랑과 그 종말에서만이 아니라, 상당한 部分에서 志鬼의 說話와 一致하고 있다. 原文의 敍述을 따라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術波伽는 길을 가다 높은 다락 위에 있는 王女를 바라보고 染着하는 마음이 생겨 食飮을 못하게 되었다. 그 사정을 아들에게서 알게 된 어머니는 身分의 차이를 들어서 아들에게 斷念하도록 타일러 보았으나 虛事였다. 이에 어머니는 計略을 써서 王女에게 接近했다. 王女의 歡心을 사는데 成功한 어머니는 王女에게 아들의 사정을 실토하고 憐愍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감동된 王女는 天祠 안에서 그녀의 아들과 密會할 것을 약속했다. 王女는 父王의 허락을 받아 天祠에 행차했다. 王女는 侍從을 門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天祠 안에 들어갔다. 이

(2) cf. 崔康賢 「'新羅 殊異傳' 小攷」(『국어국문학』, 25輯, 1962), pp. 147~63
(3) 一例로, 大東韻府群玉, 卷 9, 上聲 紙, 「孝家里」 記文은 三國史記, 卷 48, 列傳 8, 「向德」條 記文이 要約되어 있다.
(4) 大智度論 卷14 ; 法苑珠林 卷 21